

고대 陣法의 원리*

洪 乙 杓**

1. 서 론
2. 陣法의 淵源과 傳來
3. 구성 원리에 대한 분석
4. 운용방법
5. 결 론

1. 서 론

고대의 陣이란 전투를 위해 인원과 장비, 시설 등을 지형이나 전장 상황에 맞게 구축한 것을 말하고, 진법이란 그 방법과 운용법을 지칭하여 왔다. 다시 말해서 고대의 陣法은 현대의 전술이고, 陣圖는 작전계획도라 할 수 있다. 현대전에서 작전계획 없이 전장의 승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과 같이 전통시대의 전쟁도 어떠한 형태로든 부대를 전개해야 했기 때문에 이에

* 이 글은 필자의 석사학위 논문 『風后의 握奇經 研究』를 수정 개고한 것임.

** 강원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특히 조선 효종 때 『演機新編』을 지은 安命老¹⁾나 정조 때 『握奇圖說』을 쓴 楊堉²⁾ 같은 군사자들은 화포와 같은 화약병기가 이미 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국방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 서구의 화약병기 앞에 동양의 전통 진법은 맥없이 무너지게 되었다. 이 때문에 오늘날에는 주로 『손자병법』과 같은 『무경칠서』 류의 문헌들에 대한 번역물이나 연구는 있지만 진법을 학술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이나 일본 등과 같은 제3국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건국 후 진법과 관련된 문헌으로는 1981년에 許善道가 발표한 「〈陣法〉考」³⁾가 있는데 주로 조선의 陣法書와 五衛陣體制에 대한 문헌들을 연구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가 1983년에 출간한 『兵將說·陣法』은 그동안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진법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따라서 최초의 진법 소개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黃秉國은 1987년에 孫臏⁴⁾의 八陣法·十陣法과 충무공의 학익진 등에 대한 연구를 『조선조의 진법고찰』⁵⁾이란 제목으로 발표하기도 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1990년에 宋奎斌⁶⁾의 『風泉遺鄉』을 번역하여 출간한 바 있는데 그 가운데 常勝陣에 대한 소개가 있다.

1) 安命老(1620-1680) : 본관은 順興이고, 字는 德叟. 효종 1년에 增廣文科에 급제하였다. 승정원의 假注書, 刑曹佐郎, 鏡城判官, 良才察訪 등을 지냈다. 梁山郡守로 재직 중에 『演機新編』을 저술하여 戚繼光의 병제를 개편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채택되지 못하고 유배지에서 사망하였다.

2) 梁堉(1744-1816) : 字는 季深, 정조 때의 무관으로 宣傳官, 長淵府使, 永宗防禦使, 慶尙左道 水軍節都使를 역임하였고 『握奇圖說』을 저술하여 진법의 원리를 밝혔다.

3) 허선도, 「〈陣法〉考」, 『軍史』 3호,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1981.

4) 孫臏(?-BC316) : 본명은 孫伯靈, 孫武의 후손으로 山東 鄆城人. 스승 鬼谷子 밑에서 龐涓과 동문수학을 했으나 방연의 誑告를 받아 두 무릎이 잘리는 형벌을 받고 齊나라로 달아난 뒤, 齊의 軍師가 되어 馬陵의 전투에서 방연을 격파하고 자살하게 했다. 1972년 臨沂縣 銀雀山 漢墓에서 그의 병서 30편이 죽간본으로 발견되었다.

5) 황병국, 「조선조의 진법고찰」, 『軍史』 15호,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1987.

6) 宋奎斌(1696-?) : 조선 숙종과 정조 때의 무관으로 그의 생애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백기인, 『朝鮮後期 國防論 研究』, 출판사 혜안, 2007, 29-38쪽 참조.

1998년에는 白奇寅이 〈古代中國의 軍事組織과 陣法運用〉⁷⁾에서 三陣과 五陣 등을 소개하고, 盧永九가 〈梁垞의 握奇圖說과 戰車運用論〉⁸⁾을 발표한 바 있다. 노영구는 2002년에 발표한 〈朝鮮後期 兵書와 戰法の 연구〉⁹⁾에서도 진법을 논의한 바 있다.

백기인은 2003에 〈東亞3國 近代 戰法 形成의 軍事思想的 背景〉¹⁰⁾을 발표하고, 2004년에는 『風泉遺郷』과 상승진을 연구한 『朝鮮後期 國防論 研究』¹¹⁾를 출판하였다.

2005년에는 충장공 양현수 대장 기념사업회에서 양완의 『握奇圖說』을 번역하여 『國譯 握奇圖說』로 출판하였고, 이 『악기도설』은 노영구에 의해 연구되어 2007년에 『18세기 말 양완의 戰車, 騎兵, 步兵 통합 전술』¹²⁾이라는 제하에 발표되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전사편찬위원회의 成百曉 등이 번역 출판한 『兵將說·陣法』은 난해한 진법의 원리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참고가 되었다.

진법은 일반 兵書와 달리 극히 소수의 전문가들에 의해 연구되어 대중성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陣法과 戰法에 대한 연구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번역이나 부분적인 소개로 한정되어 있어 진법의 원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진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원리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고대의 진법을 현대의 전술과 연관시키는 것은 가능한 일인가? 이에 대하여 필자는 병기의 발전에 따른 전술의 변화는 필연적이지만,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부대가 전쟁이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

7) 백기인, 「古代中國의 軍事組織과 陣法運用」, 『軍史』 36호, 국방군사연구소, 1998.

8) 노영구, 「梁垞의 握奇圖說과 戰車運用論」, 『문헌과 해석』 6, 1998.

9) 노영구, 『朝鮮後期 兵書와 戰法の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

10) 백기인, 「東亞3國 近代 戰法 形成의 軍事思想的 背景」, 『軍史』 48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11) 백기인, 『朝鮮後期 國防論 研究』, 도서출판 해안, 2007.

12) 노영구, 「18세기 말 양완의 戰車, 騎兵, 步兵 통합 전술」, 『軍史』 제64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7.

로든 편제를 유지하며 대형을 전개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국가의 흥망을 결정지을 수 있는 전장에서 단지 지형에 따라 부대를 산개하는 것보다는 진법을 알고 이에 따라 작전할 수 있다면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이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필자는 30여 년의 군 복무 경험과 고대 진법의 연구를 통하여, 화력의 우세가 전장을 지배하더라도 그에 지배당하지 않고 역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진법이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에 접근하게 되었다. 이 가능성은 2차 대전 이후의 전장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 한 예가 밀림과 지하토굴을 이용하여 강대국의 막강한 화력을 극복했던 월맹군의 전술이며, 다른 한 예는 화력의 우세로도 쉽게 종결되지 않는 중동지역의 전장상황이 그것이다.

전장에서 승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무기와 전투장비도 우세해야 하겠지만 이를 조화롭게 운용할 수 있는 다른 무엇이 필요할 것이다. 월남전이나 이라크전의 참전국들은 단지 화력의 우세에만 의존한 경향이 짙다. 이것을 기계장치와 비유하면 성능 좋은 차량은 있는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운전기술이 취약한 것과 유사한 현상이 아닐까 한다.

戰法이란 무술의 기법과 같다. 무술을 배우지 않은 사람도 싸울 수 있으며 그가 상대방보다 힘이 좋다면 이길 것이다. 그러나 무술을 배워 고도의 수련을 닦은 사람을 만나면 쉽게 제압당할 수밖에 없다. '무술가가 천근을 들어 올릴 수 없지만 천근을 들어 올리는 사람을 때려눕힐 수 있다'고 한 말은 이것을 뜻하는 것이다. 진법도 무술과 같은 싸움 기술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무술은 개인의 격투기술이고 진법은 부대의 전투기술이라는 점이다. 오늘날 전통시대의 무술은 그 가치가 재인식되고 있지만 진법은 잊히거나 死藏되어 왔다. 그러나 국가의 흥망을 결정지을 수 있는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에 전통시대의 진법 역시 그 수단 중 하나가 될 것이라 보고 수학에서 공식을 찾듯, 전통시대의 전투공식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진행은, 먼저 陣法의 淵源과 전래과정을 살펴보고, 진을 구성하는 원리를 규명해 본 뒤, 그것이 어떻게 운용되었는가를 분석하여, 현대전에서

가질 수 있는 의미와 적용문제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많은 병법서들이 있지만, 중국 쪽 문헌은 『握奇經』, 『武經總要』, 『八陣合變圖說』, 『武編』, 『武備志』 등을, 우리나라의 陣書는 『五衛陣法』과 『演機新編』, 『握奇圖說』¹³⁾ 등을 참고하였다.

2. 陣法의 淵源과 傳來

(1) 중국의 진법

현재 전해지고 있는 고대의 진법은 중국에서 출현했다고 하나, 그 배경은 역사적으로 실증하기 어려운 전설로 전해진다. 전설에 따르면 고대 중국의 삼황오제 중 한 사람인 黃帝¹⁴⁾는 황하 일대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涿鹿¹⁵⁾이란 지역에서 蚩尤와 싸우며 연전연패했다고 한다. 황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여 風后¹⁶⁾가 발명한 지남침을 이용해 짙은 안개 속에서도 방향을 유지하고, 陣法을 창안하여 전투한 결과 마침내 蚩尤軍을 격파하고 승리하였다 한다.¹⁷⁾

-
- 13) 忠莊公 梁憲洙大將 記念事業會, 『國譯 握奇圖說』, 기창족보사, 2005. 이 책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소개와 盧永九 교수의 논문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필자를 위해 소개해 준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와 『國譯 握奇圖說』을 제공해 준 南原梁氏 文襄公大宗會, 원본의 사본을 제공해 준 국방대학교 盧永九 교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14) 黃帝(?-?) : 삼황오제의 하나로 중국 문명을 창시한 군주로 널리 알려져 있다. 蚩尤는 황제와 동시대의 인물로 중국의 여러 고서에 등장하는 전설적 인물. '전쟁의 신'이라고도 한다. 중국 苗族 신화에서는 九黎의 군주라 하고, 사마천의 『史記』 「封禪書」에는 漢의 고조 劉邦이 沛公으로 칭한 뒤, 곧바로 蚩尤에게 제사지내고 피로 북과 깃발을 붉게 칠했다는 기록이 있다.
- 15) 涿鹿은 지금의 河北 涿鹿. 일설은 涿州라고 하기도 하고, 일설은 江蘇 徐州의 남쪽이라고도 한다.
- 16) 風后(?-?) : 중국 고대 임금인 黃帝를 보좌하여 천하를 다스린 여섯 신하 중의 한 사람이다. 指南車를 발명하고 중국 최초의 군사학 서적으로 알려진 『握奇經』을 비롯한 병법 13편, 圖 3권, 孤虛 20권을 저술했다고 한다.
- 17) 安命老, 『演機新編』, 국립중앙도서관 전자문서, 刊寫者 年度 未詳 : '昔, 黃帝之破蚩尤, 始立九井, 以九百畝, 爲一井, 而中爲公田, 而九軍, 爲一井, 而中爲握機, 九軍八陣之法, 皆始於此也.'

황제나 탁록전투에 대한 기록은 『史記』에 수록되어 있지만 진법에 대한 내용은 없다. 따라서 장구한 세월이 흐름에 따라 진법이 탁록전투에서 창안된 것인지에 대한 고증은 어렵다. 다만 탁록전투 시기에 발명되었다고 하는 나침반은 현재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이때의 진법을 기록한 것이라는 『握奇經』은 진법의 모태로써 오늘날까지 전해오면서 '진법에 대한 이해는 곧 『악기경』에 대한 이해'라 할 수 있을 만큼 그 원전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진법은 탁록전투 이후에도 끊임없이 계속된 전쟁과 더불어 발전하여 그 형태도 수많은 종류가 있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布陣 방법을 전해주는 문헌은 찾기 어렵고, 단지 이름만 전해지는 것도 그다지 많지 않다. 周나라의 개국공신인 呂尙¹⁸⁾이 저술했다고 하는 『六韜』 三陣 편에 天陣, 地陣, 人陣에 대한 언급이 짙막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의 진법으로 太公開發方教閱五行陣圖와 太公增五行爲三才陣圖가 있다고 한다.¹⁹⁾

춘추시대가 열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繻葛의 전쟁에서 高渠彌²⁰⁾가 창안한 魚麗陣은 『李衛公問對』에서 언급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후 齊나라 管仲²¹⁾의 管仲內政陣圖와 田穰苴²²⁾의 司馬法握奇營圖, 孫武²³⁾의 孫武子乘之陣圖 등과 漢 건국 초기 명장 韓信의 垓下五軍陣과 같은 많은 수의 진법이 『武備志』²⁴⁾에 수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시대의 명장 孫臏의 병법에도 八陣편이 있어 팔진이란 명칭은 오래 전부터 사용되었음을

18) 呂尙(?-1015) : 太公望, 姜子牙, 姜太公이라고도 하며 周武王을 도와 殷을 멸망시키고 周를 세운 인물이다. 저서로는 『六韜』와 『三略』 등이 있다고 한다.

19) 이 진법은 『武備志』에 수록된 것을 참고하였다.

20) 高渠彌(?-?) : 춘추시대 鄭나라의 명장. 繻葛의 전쟁은 BC707년에 周桓王과 鄭莊公이 격전했던 싸움이다.

21) 管仲(B.C. 723-645) : 이름은 夷吾, 字는 仲, 『管子』의 저자.

22) 田穰苴(?-?) : 姜太公 呂尙의 후예라고 하며 춘추시대 齊景公 때의 장군으로 『司馬法』의 저자로 알려졌다. 출전에 앞서 약속시간보다 늦게 도착한 監軍 莊賈를 처형하려 할 때 제경공이 죽이지 말라는 使者를 보냈지만 '진중에서는 왕의 명령이라도 듣지 않을 수 있다'며 처단한 고사는 유명하다.

23) 孫武(?-?) : 字는 長卿으로 춘추시기 齊國 樂安(지금의 山東省 惠民縣) 사람으로 『孫子兵法』의 저자

24) 『武備志』 : 明의 天啓 원년(1621)에 茅元儀가 15년간 2천여 종의 병법서를 5부 240권으로 정리한 책.

알게 해준다. 『後漢書』에도 漢나라 竇憲²⁵⁾은 팔진법으로 흉노를 격파했다는 기록이 있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후 漢代의 승상 公孫宏²⁶⁾이 『악기경』을 해설하였다고 하며, 제갈량은 이를 토대로 새로운 팔진법을 창안하여 중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진법을 운용했던 인물로 알려져 왔다.

쑤나라 때 서평태수 馬隆²⁷⁾은 『악기경』의 讚을 지었으며, 당나라 개국공신 중 한 사람인 李靖²⁸⁾은 『악기경』과 팔진법을 六花陣法으로 승화시켜 이름을 떨쳤다고 한다.

李靖 이후에 진법을 연구한 인물들은 獨孤及²⁹⁾과 裴緒³⁰⁾가 있는데 그들의 陣圖는 『武經總要』에 의해 소개되고 있다. 『무경총요』는 宋나라 仁宗이 1004년 송과 遼 사이에 맺은 澶淵의 맹약³¹⁾을 거울삼아 송군의 전투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추밀사 曾公亮³²⁾과 端明殿 학사 丁度³³⁾에게 병

25) 竇憲(?-92) : 字는 伯度, 扶風 平陵(지금의 陝西 咸陽) 사람이다. 竇融의 曾孫으로 흉노를 격파한 東漢의 저명한 장군이다.

26) 公孫宏(B.C. 199-B.C. 120) : 公孫弘이라고도 한다. 字는 季, 齊의 菑川薛 사람이다.

27) 馬隆(?-?) : 字는 孝興, 東平 平陸 사람으로 삼국시대 曹操의 무관이었으나 나중에 西晉에서 벼슬하여 涼州의 반란을 평정하였고 涼州의 鎮守를 십여 년간 수행하였다.

28) 李靖(571-649) : 字는 藥師, 당나라 京兆 三原(지금의 陝西) 사람. 당대중 때 兵部尙書, 尙書右仆射 등의 관직을 지냈다. 629년 동돌궐이 반란을 일으키자 병부상서로서 定襄道行軍總管이 되어 삼천 명의 정병으로 돌궐을 섬멸하고 그 수령 頡利可汗을 사로잡았다. 이어서 吐谷渾에 침입한 적도 평정하여 衛國公이 되었다. 저서로는 『李衛公望江南』, 『六軍鏡』, 『玉帳經』, 『兵家心書』, 『兵鈴新書』, 『李衛公問對』, 『衛公兵法』 등이 있다. 하나 지금은 『李衛公問對』와 『衛公兵法』이 남아 있다.

29) 獨孤及(725-777) : 唐朝 산문가로 字는 至之, 河南 洛陽 사람이다.

30) 裴緒(?-?) : 그의 이름은 여러 진법서에서 볼 수 있지만 行狀에 관한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31) 澶淵의 맹약 : 澶淵는 지금의 河南省 濮陽이다. 北宋이 건립된 후 遼를 몰아내고 幽雲 16州를 탈취하기 위해 979년에 幽州를 포위했지만 요군에게 대패하였다. 986년, 재차 정벌을 시도했지만 또 대패하였다. 요군은 승세를 타 맹공하고 송군은 전멸하다시피 하였다. 1004년 요군이 대거 남하해 하북의 澶州 부근에서 송의 도성인 東京을 압박하였다. 조정은 당황하여 많은 대신들이 천도하여 적을 피하자고 주장하였지만, 宋 眞宗이 직접 親征해 요군을 격퇴하고, 1005년에는 遼와 협약을 맺었다.

32) 曾公亮(999-1078) : 字는 明仲이고 호는 樂正, 晉江 사람이다. 송나라 仁宗 2년에 진사가 되어 中書門下平章事와 집현전 대학사로 재직하며 군사력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인종의 명으로 1040-1044년까지 『武經總要』를 편찬하였다.

33) 丁度(990-1053) : 字는 公權로 開封 사람이다. 벼슬이 參知政事에 이르렀다. 宋 仁宗 때, 文字訓詁學家로 『備邊要覽』, 『慶歷兵象』, 『瞻邊象』 등 많은 저술을 남겼다.

서를 수집 편찬할 것을 명하여 간행한 것이다. 증공량 등은 4년간의 작업 기간을 거쳐 40권 약 25만 자의 병법전서를 1044년에 완성하였다. 이 책에는 圖 330쪽과 인종이 직접 쓴 서문도 있다.

明代는 어느 때보다 새로운 병서의 저술과 편찬이 많았기에 중국 전통병서가 총결산된 시기라 할 수 있다. 正德 연간(1506~1521)의 인물인 龍正³⁴은 제갈량을 흠모하던 중, 四川 지역의 순무로 있을 때 제갈량이 魚腹浦의 강변에 돌과 흙으로 팔진법을 포진했던 유적에 사람을 보내 배치도를 그려오게 하고, 이를 토대로 『八陣合變圖說』을 저술하였다고 한다. 물론 이때는 제갈량의 사후로부터 130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뒤의 일이다.

이후 唐順之³⁵는 그가 저술한 『武編』에서 赤卒十二星을 이용하여 진법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戚繼光³⁶은 『紀效新書』와 『練兵實紀』를 저술하고, 鴛鴦陣을 창안하여 왜구를 격퇴한 인물로 유명하다. 그의 진법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 도입되어 군사훈련의 지침서로 삼기도 하였다. 그러나 척계광의 저술을 보면 전투기술은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진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록하지 못한 면이 있다.

王鳴鶴³⁷은 明代의 무관들이 병법을 공부하지 않는 것을 개탄하며 『登壇必究』를 저술했는데 이 역시 진법에 대하여 많은 소개를 하고 있으며, 그의 저술은 조선에서 『登壇捷錄』이란 이름으로 요약되어 출간되기도 했다.

茅元儀³⁸는 당시에 전해지는 2000여 종의 병서를 240권으로 정리하여

34) 龍正(?-?) : 행적은 알려지지 않지만 평생 병법을 좋아하여 많은 서적을 탐독해 조예가 깊었다고 한다. 명나라 正德 연간에 四川의 巡撫에 부임한 바 있다.

35) 唐順之(1507-1560) : 명나라 陽明學者이다. 저서로 『武編』 등이 있다.

36) 戚繼光(1528-1588) : 字는 元敬, 號는 南塘으로 山東 登州 사람이다. 明代 명장이며 군사가로 俞大猷와 함께 이름을 날렸다. 10여 년간 浙·閩·粵 沿海에서 왜구와 80여 회의 전투를 하여 모두 격퇴하였다. 그 군대를 戚家軍이라 부르고 그의 전투방법을 戚法이라 부르기도 했다.

37) 王鳴鶴(?-?) : 명나라 南直隸 山陽(지금의 江蘇省 淮安) 사람이다. 대략 명나라 후기 嘉靖에서 萬曆년간 사이에 생존했던 인물로 추정하며 『登壇必究』를 써서 군사 분야에 탁월한 공헌을 하였다.

38) 茅元儀(1594-1640) : 字는 止生이고, 號는 石民으로 절강성 歸安(지금의 절강성 吳興) 사람이다. 명대의 대장이자 문학가 茅坤의 손자로 1621년에 『武備志』 240권을 완성하였다.

『武備志』를 편찬했는데 이는 중국 병법서의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도 전래하여 현재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淸은 국책사업으로 『四庫全書』³⁹⁾를 간행하여 중국 역대의 문헌들을 재 편찬하였다. 이때 수록한 兵家類 19권의 병법 중 『악기경』이 첫 번째로 수록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당시 사람들도 이 책이 가장 오래된 병서로 간주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악기경』의 提要에 이 책이 후세의 위작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지만 위서문제는 이 글의 논제가 아니기에 언급하지 않고자 한다.

(2) 우리나라의 진법

『악기경』과 진법은 우리나라에도 전해져 고대 진법의 토대가 되었다고 한다. 그것은 1492년에 간행된 『五衛陣法』⁴⁰⁾의 서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자료 1】

진법은, ㉠풍후가 『악기경』을 지은 뒤로, 제갈량과 이정 등이 그의 유향을 연구하여, 비록 때에 따라 팔진이니 육화진이니 하는 이름들을 붙인 적이 있었으나, 그 ㉡이치는 오늘날에 이르도록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⁴¹⁾

【자료 1】의 ㉠과 ㉡는 『악기경』의 창안자가 풍후이고, 진법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원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으로, 당시 우리나라에서 진법의 기원이나 전래과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내용이다.

39) 『四庫全書』: 淸 乾隆 38년(1773)에 착수하여 건륭 47년(1782)에 완성한 백과전서이다. 총 3,503종 7만 9,337권으로 經·史·子·集의 4부 44류로 나누었다. 이 글에서는 臺灣에서 影印하여 1983년에 발행한 『文淵閣 四庫全書』를 참고하였다.

40) 『五衛陣法』: 문종과 세조 시기(1451-1492)에 정리된 조선의 진법이다. 국립중앙도서관 電子圖書와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에서 發行한 『兵將說·陣法』을 참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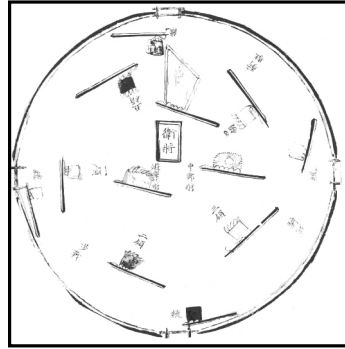
41) ① 軍事文獻集 Ⅰ, 『兵將說·陣法』,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83. 161-162쪽.

② 『陣法』, 국립중앙도서관 전자문서, 刊寫者年度 未詳: ‘陣法, 自風后 握奇以後, 諸葛亮, 李靖, 得其遺法, 雖因時宜有, 八陣六花之名, 而其理則至于今日, 有未嘗異者.’

고대 우리나라에도 많은 종류의 병법과 진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존하는 것은 鄭道傳의 『三峰集』에 실린 『陣法』이 가장 오래되었다고 하며, 이후의 것으로는 『陣說問答』, 『癸丑陣說』, 『五衛陣法』, 『陣說』 등이 있다. 임진왜란 때의 무장 丁景達이 필사한 『陣法』⁴²⁾은 당시 장수들에 의해 진법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사료가 된다. <도-1>은 그 가운데 있는 진도 중 하나이다.

<도-1> 정경달의 陣圖

인용 : 『盤山世稿』



조선의 『五衛陣法』은 임진왜란을 당하여 왜군의 조총공격에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그러다 평양성 전투에서 明軍이 사용한 척계광의 진법이 성공하자 조선도 이 진법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나 왜구 퇴치를 위한 척계광의 진법은 병자호란을 일으킨 여진족의 기병 전술을 막아낼 수 없었다. 이에 안명노는 『演機新編』을 지어 五衛陣法으로 회귀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이제까지 언급한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진법서들은 대부분 陣圖만을 그려 놓거나 한정된 설명만 하고 있어 실전에 적용하기가 용이하지 못했다. 그러나 楊堉이 저술한 『握奇圖說』은 상권에서 『악기경』의 원리를 분석하고, 하권에서는 鹿角車陣法에 의한 전투방법을 설명하고 있어 실전에 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었다. 이에 양완은 우리나라 전통시대에 생존했던 최후의 진법 연구가이자 진법의 요결을 총결산한 인물이 아닐까 한다.

이상과 같이 연구되어 온 진법은 조선 말에 이르러 서구 열강의 근대화 된 화력병기 앞에 무력화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42) 『陣法』 : 국립 진주박물관 소장(소장번호-정학열 위탁). 진주박물관에서는 『盤曲陣法』이란 이름으로 전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필자가 『盤山世稿』에 영인된 것을 검토해보니 정경달 장군의 독창적인 진법이 아니라, 문종 때 편찬한 『陣法』의 일부와 『紀效新書』의 목차 등을 필사한 것이었다. 이 책을 볼 수 있게 안내 해 준 국립진주박물관과 押海 丁氏 大宗會 정학열, 정종발 선생께 감사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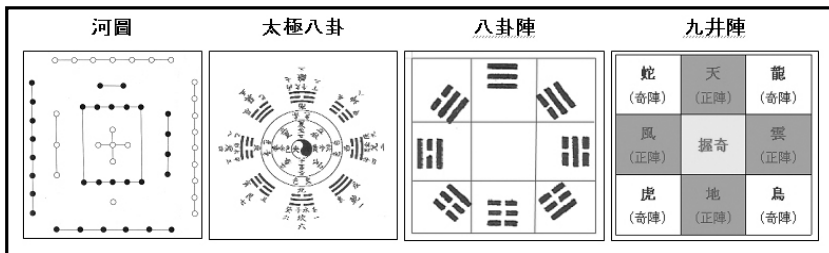
3. 구성 원리에 대한 분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진법의 원리는 『握奇經』에서 나왔고, 악기진법은 河圖에서 착안한 것이기 때문에, 布陣의 원리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악기경』을 이해해야 하고 『악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도를 알아야한다. 그래서 먼저 진법이 왜 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지 그 과정을 제시해 보고, 다음으로 『악기경』에서 말하고 있는 포진 방법을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1) 河圖 · 八卦와 九井法

풍후는 하도에 담겨 있는 자연법칙을 바탕으로 복희가 그린 팔괘와 황제의 구정법을 가미하여 진법을 창안하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하도에서 팔괘가 그어지고 팔괘에서 구정법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도-2>와 같이 도식해 보았다.

<도-2> 河圖와 八卦 및 九井(河圖와 太極八卦는 世昌書館, 『唐四柱全』에서 引用)



하도의 흑백 점은 문자가 없던 당시에 陽數와 陰數를 표기한 것이며 이 수들의 집합은 방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의미를 상징하고 있지만, 진법에서는 개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지 않고 배치 순서를 표현한 것으로 보았다. 즉, 자연현상의 배치 순서를 북쪽을 기점으로 중앙에서 마무리하되, 가운데에 있는 5번과 10번을 중심으로 후방 북쪽에 1번과 6번을 두고, 전방

남쪽에 2번과 7번을 둔 뒤, 다시 좌측 동쪽에 3번과 8번, 우측 서쪽에 4번과 9번으로 배치하였다. 풍후는 이것을 응용하여 軍陣도 중앙의 지휘소를 중심으로 전후좌우로 편성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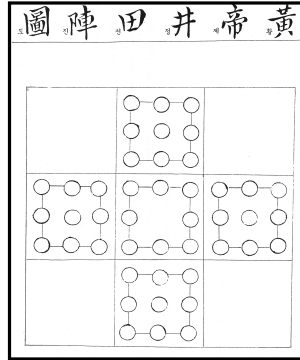
팔괘는 하도의 흑백 점을 음효와 양효로 표현하고 3갓을 1卦로 구성하여 만든 8개의 괘로 『周易』의 근간이 되었다. 이 팔괘를 여덟 곳의 방위별로 배치한 것이 팔괘진이고, 이것을 9등분하여 實陣인 正과 虛陣인 奇로 구분하고, 중앙에 지휘소를 배치한 것이 九井陣이다. 양완은 이것을 <도-3>과 같은 黃帝井田陣圖로 표현하였다.

이에 따라 진법의 1차 배치는 하도의 生數에 따라 중앙지휘소(5)를 중심으로 한, 前(2-天), 後(1-地), 左(3-風), 右(4-雲)의 4면 배치⁴³⁾이며 이것은 正陣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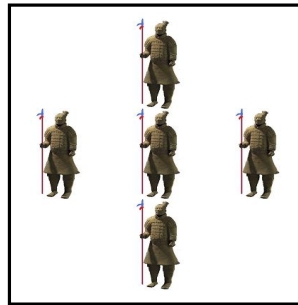
2차 배치는 하도의 成數인 6(後-蛇), 7(前-鳥), 8(左-龍), 9(右-虎), 0(央-主將)을 生數에 대입한 것으로 奇陣이라 하였다.⁴⁴⁾

이와 같은 배치는 『악기경』이나 진법이 河圖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는 데 설득력을 갖게 하고 있다. 그래서 宋代 이후에 진법을 논했던 중국의 병학 전문가들을 개념 없다고 비평한 안명노 같은 인물도 『악기경』은 성현의 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⁴⁵⁾이라고 하였다.

<도-3> 황제 정전진도
인용 : 『握奇圖說』



<도-4> 伍
(兵士寫眞은 秦備에서 應用)



43) 古代에는 남쪽을 전면, 북쪽을 후면, 동쪽을 왼쪽, 서쪽을 오른쪽으로 보았다. 韓圭性, 『易學原理講話』, 서울 英文社, 1957.
44) <도-3>의 九井陣에 있는 天地風雲과 龍虎鳥蛇의 方位가 서로 어긋나는 것은 正兵과 奇兵의 원칙에 따라 방향을 바꿨기 때문이다.
45) 安命老, 『演機新編』, 국립중앙도서관 전자문서, 刊寫者 年度 未詳 : '八陣之制, 本於河洛, 數起於五, 而終於八. 大陣則法, 伏羲八卦, 小陣則法, 文王六十四卦, 此乃, 天道自然之理, 而不可以, 人巧有所假飾也.'

1, 2차 배치 방법은 병력 편성에도 적용하였다. <도-4>와 같이 중앙의 지휘자를 중심으로 전후좌우에 각각 한 명씩 배치하여 '伍'를 조직했는데 이것은 正兵의 개념이다. 여기에 다시 5명의 奇兵을 남은 공간에 배치하여 '什'이 된다.

이와 같은 배치 방법에 따라 최소 부대단위인 伍로부터 什·兩·卒·旅·師·軍에 이르는 대부대까지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군사조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고대의 군사 편제는 그 시기나 국가에 따라 확일적이지 않지만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정리한 『中國軍事通史』에 따르면 대체로 <도-5>와 같이 조직되었다고 한다.⁴⁶⁾

<도-5> 고대 중국의 단위대 구성
(中國軍史科學院 編, 『中國軍事通史』에서 발췌)

| 인 원 | | 전 차 | |
|-----|---------------|-----|-----|
| 단위 | 인원수 | 단위 | 전차수 |
| 伍 | 5 | 隊 | 5 |
| 什 | 10 | 正偏 | 25 |
| 兩 | 25 | 師 | 100 |
| 卒 | 100 | | |
| 旅 | 500~1,000 | | |
| 師 | 2,500~10,000 | | |
| 軍 | 10,000~12,500 | | |

(2) 握機陣法

『악기경』에서 설명하는 포진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1차 포진 : 天陣의 배치

【자료 2】

① 먼저 遊軍을 출동시켜 兩端을 정한다. ② 天陣은 衝으로 圓을 이루고, 地陣은 軸으로 方이 되게 한다. ③ 風陣은 天陣에 배속되고, 雲陣은 地陣에 배속된다. ④ 2개의 열로 조직된 衝은 각각 4개의 부대로 편성하되, 전방과 후방의 衝은 각각 3개의 부대로 구성한다. 風陣을 네 모서리에 배치하기 때문에 진이 둥글게 된다. ⑤ 1열로 조직된 軸은 각각 3개의 부대로 편성하되, 전방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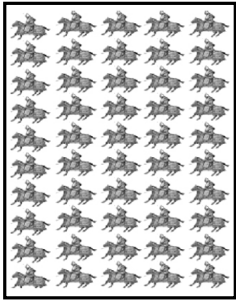
46) 中國軍事通史編委會, 『中國軍事通史』 2권, 中國 軍事科學, 1998, 76-82쪽.

후방의 衝은 각각 3개부대로 구성한다. 雲陣이 네 귀퉁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方이 된다. ①天陣은 외부의 전후좌우에 배치하고, 地陣은 내부의 전후좌우에 배치하여 모두 8진이 된다.⁴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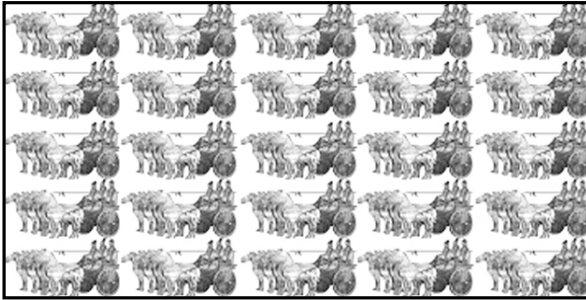
【자료 2】의 ㉑에서 말하는 遊軍이란 오늘날의 수색정찰대와 유사하다. 포진하기 전에 먼저 수색정찰대를 파견하여 지형을 정찰하며 경계를 제공하게 한다.

㉒는 天陣과 地陣의 구성요소와 형태를 말한다. 그에 따르면 ‘衝’과 ‘軸’·‘衝’이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필자가 이들을 종합하여 분석한 바에 의하면 ‘衝’이란 天陣에 소속되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부대를 말한다. 즉 오늘날의 예비대라 볼 수 있다. ‘軸’이란 地陣에 있는 것으로 중심을 말한다. 오늘날의 부대와 비교하면 각 단위대의 본부나 지휘소와 같다고 볼 수 있다. ‘衝’은 돌격부대로 오늘날의 전차부대와 유사하다.

〈도-6〉 기병대



〈도-7〉 전차대



㉓에서 風陣과 雲陣이란 역습이나 충격부대를 말한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풍진은 〈도-6〉과 같은 騎兵부대로, 운진은 〈도-7〉과 같은 戰車부대로 표현해 보았다.

47) 「握奇經」, 『文淵閣 四庫全書』 726권, 臺灣: 商務印書館 影印, 1983, 3쪽 : ①先出遊軍, 定兩端. ②天有衝圓, 地有軸, 前後有衝. ③風附於天, 雲附於地. ④衝有重列, 各四隊, 前後之衝, 各三隊, 風居四維 故 以圓. ⑤軸單列, 各三隊. 前後之衝, 各三隊. 雲居四角 故 以方. 天居兩端, 地居中間, 總爲八陣.’

㉔는 衝을 전후 2개의 열로 조직하여, 좌우는 각각 4개의 부대로 한 단 위대를 편성하라는 것이며, 전방과 후방의 衝은 각각 3개의 부대로 구성하라는 뜻이다. 이어서 風陣을 전후좌우의 네 공간에 배치하여 등글게 포진 하라고 했다.

㉕는 1열로 조직된 軸으로 각각 3개의 부대로 편성하되, 전방과 후방에는 衝을 두어 그 역시 각각 3개 부대로 구성하고, 雲陣은 네 귀퉁이에 위치시켜 方形이 되게 하라는 것이다.

㉖는 완성된 결과를 표현한 것이다. 天陣은 외부에서 전후좌우 넷으로 둘러쳐 배치하고, 地陣은 내부에서 전후좌우 넷으로 배치하여 8진이 된다.

2) 2차 포진 : 地陣의 배치

【자료 3】

㉑地陣은 사각형으로 전개하고, ㉒風陣과 雲陣은 각각 후방의 衝 앞에 배치한다. ㉓천진을 양단에 배치한 다음, ㉔지진은 중간에 위치시킨다. 두 개의 ㉑地陣이 북쪽 후방에 배치된다는 것은 이것을 말한다.⁴⁸⁾

【자료 3】의 방법은 地陣의 배치 방법을 말한다.

㉑는 지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대지를 상징하기에 方形으로 배치하고, 여기에 ㉒를 배속시켜 보완한다. ㉓의 천진은 외부에 배치된 진을 말한다. 양단이란 좌우나 전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전후좌우 더 나아가 360도 전 방위를 말한다.

㉔는 지진의 위치를 말하고, ㉑는 地陣을 왜 후방이라고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다. 지진은 중앙에 위치하지만, 전후좌우가 일정하게 정해지지 않은 圓陣에서 전후의 개념을 구분하자면, 외부에 둘러친 천진은 전방부대, 중앙의 지진은 후방부대가 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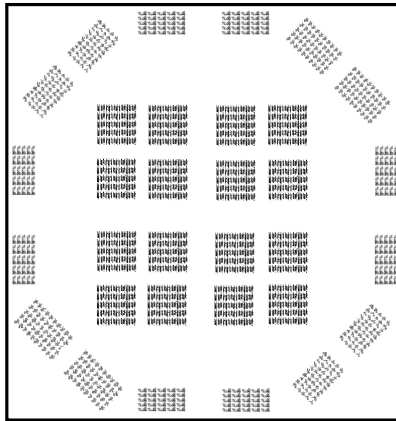
이와 같은 방법으로써 기본 포진이 완성된다. 이것을 간략하게 도식해

48) 「握奇經」, 『文淵閣 四庫全書』 726卷, 臺灣: 商務印書館 影印, 1983, 3쪽 : '地方布, 風雲各在, 後衝之前. 天居兩端, 其次 地居中間. 兩地爲北是也.'

보면 <도-8>과 같은 윤곽이 나온다. <도-8>에 편성된 단위대는 <도-6>이나 <도-7>과 같은 부대들이 압축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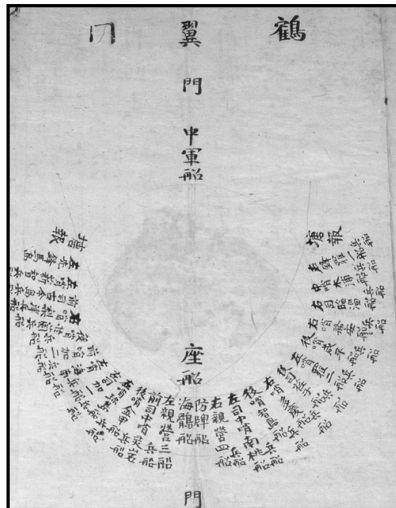
이러한 배치는 단순하다고 볼 수 있다. 외부는 둥글게, 내부는 정사각형으로 배치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착안이나는 의문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쉽지 않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은 한산해전에서 船團을 <도-9>와 같이 양 날개를 펼친 학익진으로 전개하여 왜선을 포위 섬멸하였다⁴⁹⁾고 한다. 단지 부대를 양쪽으로 전개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큰 의미를 갖지 않을 수도 있지만, 大軍이나 大船團을 양쪽으로 전개하기란 쉽지 않다. 먼저 치밀한 작전계획과 숙련된 훈련이 없으면 혼란이 야기되어 자멸할 수도 있는 것이 전장의 특성이다. 특히 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적이 돌진하여 중앙을 돌파해 버리면, 적을 포위하기 이전에 아군이 먼저 격파당하는 위험 부담이 따른다. 이순신 장군은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은 용병술로 대첩을 거뒀던 것이다.

<도-8> 팔진의 배치



<도-9> 학익진

인용: <http://lyuen.egloos.com>.



49) 황병국, 『조선조의 진법고찰』, 『軍史』 15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7. 82-87쪽.

이와 같이 대군을 편성하여 외부와 내부를 원과 방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치밀한 행동계획과 반복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학익진이 포위진으로 변화하는 것과 같은 운용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방해하는 상대가 없는 축제에서 한 집단이 매스게임을 하더라도 많은 연습을 하지 않으면 단일행동이 불가능하고, 부대행사를 위한 분열도 한 부대가 통일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수 없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런데 진법의 전개는 적의 강력한 파괴 공격이 따른다. 매스게임이나 분열행진과 비교할 수 없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진법이라도 운용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3) 지형에 따른 포진

포진을 하려면 먼저 지형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기동력이 뛰어난 지상 장비와 공군력을 이용하여 강력한 파괴력으로 결전하는 현대의 전장에서도 산악이나 구릉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진지를 구축하기 어렵다. 『李衛公問對』에서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자료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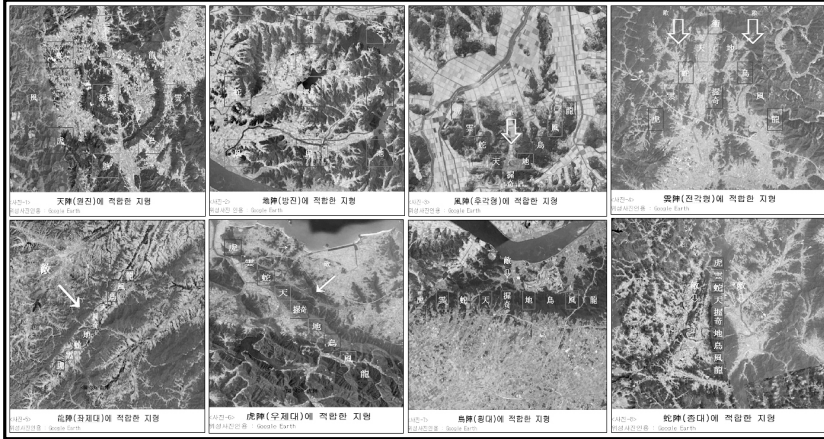
본디 靑黃赤白黑은 다섯 방위를 상징하는 색깔로 이에 따라 (陣의) 명칭들이 만들어 진 것입니다. 方圓曲直銳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地形에 따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⁵⁰⁾

【자료 4】는 진법이 지형요소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 李靖의 설명을 인용한 것이다. 전장에서 지형이 갖는 중요성은 재삼 언급할 필요가 없지만, 진법 역시 지형과 부합되지 않으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특히 현대전장에서는 지형조건에 맞게 적절히 포진하지 않으면 화력에 의해 섬멸당할 위험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이와 같이 지형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50) 「李衛公問對」, 『文淵閣四庫全書』 726卷, 臺灣 商務印書館 影印, 1983, 154쪽 : '本因五方色, 立此名, 方圓曲直銳, 實因地形, 使然.'

없는 여러 가지 포진법을 표현하기 위해 <도-10>과 같은 몇 장의 위성사진을 제시하고 거기에 적합한 진법을 대입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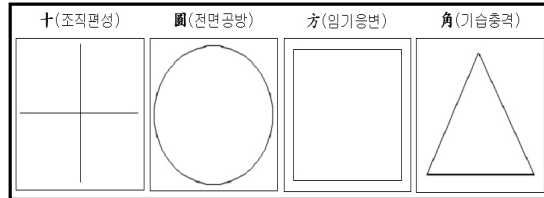
<도-10> 지형조건에 따른 포진의 예
(사진인용 : 구글어스)



4) 十圓方角과 陣號

진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포진의 요결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하다. 이 화두를 오랜 기간 숙고하던 중 『天符經의 비밀과 백두산족 문화』⁵¹⁾를 읽고 <도-11>과 같은 해답을 찾게 되었다. 이 책은 진법과 전혀 무관하다. 다만 천부경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河

<도-11> 十圓方角圖



51) 정재승, 『천부경의 비밀과 백두산족 문화』, 정신세계사, 1989. 필자는 이 책을 통하여 『周易』이나 『天璣大要』, 『易學 原理講話』에서 파악하기 어려웠던 河圖와 陣法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었다.

圖를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圓方角을 合一한 天符印이라는 기호를 제시하였는데 이것이 진법의 원리와 부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진법도 하도의 자연법칙에서 유래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필자가 파악한 진법의 요체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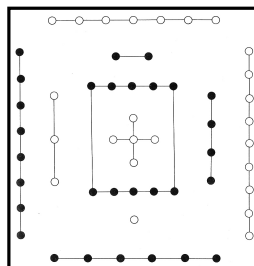
① 十(십) : 조직과 편성

포진의 첫 단계는 조직과 편성이다. '부대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는 작전 구상의 첫 번째 단계로 승패를 결정짓는 관건이 된다. 그것을 기호로 '+'으로 표기하고 '십'이라 이름해 보았다. 왜 그런가? <도-12>의 하도를 보면 중앙에 있는 흰점 다섯 개가 가운데에서 전후좌우로 연결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生數 5를 상징하여 방위로는 중앙, 五行으로는 土, 天干은 戊己, 색깔로는 黃色 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진법에서는 이것에 착안하여 조직의 기본 단위인 伍制를 구성하였으며 대부대 편제까지 전·후·좌·우·중군인 五軍으로 편성하였다. 軍을 5로 편성한 원인을 찾아보면, 첫째는 부대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방향이 있기 때문이며, 둘째는 부대를 하나의 생명체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군대도 두 팔이나 날개와 같은 左右가 있어야 하고, 두 다리 같은 前後가 있어야만 운용하는 데 용이하다. 이것은 오랜 기간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것으로 다섯 이상의 조직은 번거롭고 그 이하의 조직은 부족하다. 그래서 5로 분류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본 것이다.

② 圓(○) : 전면방어와 포위

포진의 다음 단계는 작전지역에 대한 區劃이다. 그것을 기호로 '○'이라 표기하고 '원'이라 이름해 보았다. 元亨利貞한 하늘은 모든 것을 두르고 있다. 포진에서는 이를 인용하여 전 방위 방어를 상징하고, 포위공격을 상징하기도 한다. 진법에서 天陣이라 하고 衡이라 한다.

<도-12> 河圖



③ 方(□) : 변화와 임기응변

세 번째 단계는 변화와 임기응변이다. 기호로는 '□'으로 표기하고 '방'이

라 하였다. 왜 방인가? 원이 이지러지면 변화가 시작되는데 그것을 방으로 표현한 것이다. 陣이 원의 상태로만 유지되고 변함이 없다면 생명력을 상실한 것과 같다. 따라서 적의 공격에 변화하는 것이 진법의 세 번째 요결이라 보았다. 또한 方은 大地를 상징하여 地陣이 되고 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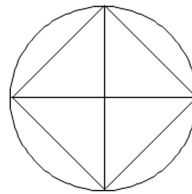
④ 角(△) : 집중과 충격

네 번째 단계는 집중과 충격이다. 기호로는 충격을 상징하는 '△'으로 표기하고 '각'이라 한다. 왜 각이라 하나? 각은 끝이 날카로워 파괴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악기진법에서는 衝이라 한다. 적의 공격을 받게 되면 대응하면서 틈을 보아 역습을 감행하여 충격 행동으로 적을 격파하고 승리를 쟁취한다. 각을 진법의 최종단계로 본 것이다.

⑤ 陣號 : 十·圓·方·角의 융합

이와 같은 네 가지 단계를 하나의 기호로 표기하여 <도-13>과 같이 도식화하고 '陣號'라 명칭하였다. 진호는 중앙의 十을 중심으로 둥글게 포진하여 전면방어와 포위 공격을 상징하는 圓과, 방어와 변화를 상징하는 方에, 용호조사 4개의 奇陣으로 나누어진 衝의 삼각형을 통합한 것이다. 이것은 天符印⁵²⁾에서 착안한 것이다. 천부인의 기호는 진법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 원리와 이치는 서로 부합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진호는 진법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도-13> 陣號



(3) 팔진법

漢代에 이르면 風后가 창안한 진법이 군사가들에 의해 널리 알려져 특별한 방법이 될 수 없었다.⁵³⁾ 그러나 삼국시대의 제갈량은 그것을 특이한 전법으로 승화시켜 많은 전공을 세웠고, 그의 전법은 팔진법이란 이름으로 위명을 떨쳤다. 그렇지만 작전법은 고대나 현대를 막론하고 국가적 기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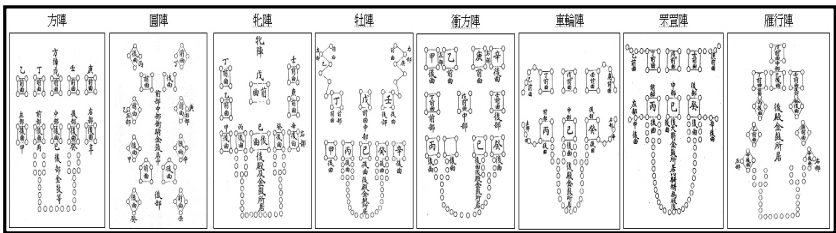
52) 정재승, 『천부경의 비밀과 백두산족 문화』, 정신세계사, 1989, 49쪽.

53) 中國軍事通史編委會, 『中國軍事通史』 7권, 中國 軍事科學, 1998, 434쪽.

항이라 관계자가 아니면 함부로 엿볼 수 없었다. 제갈량이 죽자 그의 전법이 측근들에게 전해졌다고 하지만 후세까지 남겨지지 않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진법을 재현해 보려고 노력한 兵學家들이 있었기에, 그들 중 몇 가지 사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唐 裴緒가 그린 팔진법은 팔진의 원리를 재현했다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武經總要』는 그것을 <도-14>와 같은 方, 圓, 牝, 牡, 衝方, 罽置, 車輪, 雁行 등의 형태로 수록하고 있다. 이들 명칭이 의미하는 것을 보면, 方은 사각형, 圓은 둥근 고리, 牝은 암컷, 牡는 수컷, 衝方은 충격, 罽置는 토끼그물, 車輪은 수레바퀴, 雁行은 기러기 떼가 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풍후악기진도에 天, 地, 風, 雲, 龍, 虎, 鳥, 蛇라는 팔진의 명칭이 있음에도 배서는 方, 圓, 牝, 牡, 衝方, 罽置, 車輪, 雁行의 진도를 그려 독창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이 陣式들은 지휘본부를 중심으로 좌우의 변화에만 집중되어 큰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것은 그가 『악기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완숙한 경지에 이르러 독창적인 진법을 창안한 것이 아닌가 한다. 조선의 안명노는 배서의 진법을 팔진의 정수를 모르는 자가 그린 것이라고 폄하하였다.⁵⁴⁾

<도-14> 『무경총요』에 도식된 팔진의 변화 (臺灣商務印書館 影印, 『文淵閣 四庫全書』 726冊 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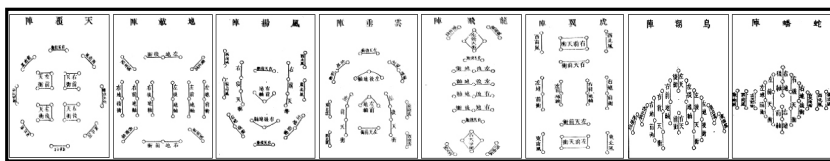
<도-14>뿐만 아니라 모든 진도에서 '○'으로 표기된 것은 부대 단위를 의미하며,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單隊號와 같다. 한 예로 보병대대는 '⊠'이다.

54) 安命老, 『演機新編』, 국립중앙도서관 영인본, 刊寫者年度 未詳. 75쪽 : '若, 唐 裴緒之, 常山蛇陣 及 八陣則, 有同見載, 又無定道.'

이와 같은 기호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란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

『무경총요』 다음으로 팔진도를 설명하고 있는 문헌은 龍正의 『八陣合變圖說』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이 圖說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이때는 제갈량의 사후로부터 1300여 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본래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느냐는 점이다. 둘째, 용정이 병법에 밝았다고 하지만 이 陣圖는 자신이 직접 어복강의 유적을 답사하여 그린 것이 아니고 사람을 시켜 그려오게 했다는 점이다.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그렸는지? 그가 병법이나 진법에 대한 식견이 있는지? 등에 대한 의혹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다른 대안이 없었기에 이후의 군사가들은 『팔진합변도설』을 팔진의 정석에 가까운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도-15> 『팔진합변도설』에 도식된 팔진의 변화(中國解放軍出版社, 『中國兵書集成』, 40권 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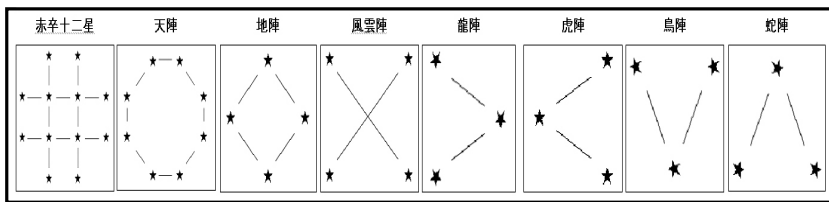
<도-15>는 『팔진합변도설』에 도식된 여덟 가지 진법의 형태를 집약해 본 것이다.

이 진도들은 외견상으로도 봐도 어떤 그물이나 덫과 같이 계획되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아군의 병력과 장비물자를 이용하여 덫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전법을 만든 것이 제갈량의 팔진법으로 보인다. 이 진도들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자면 많은 지면이 필요하다. 연대나 사단규모의 부대라도 作戰計劃圖 한 장을 그리려면 『○○부대작전계획』이란 책자에 목차와 개요를 기술하고, 병력의 조직과 배치, 전투장비물자의 조달과 운용, 전투방법, 전투근무지원, 협조사항 등을 망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용정이 소개한 진법에는 그런 내용을 기술하지 않았기에 이 진법들의 운용방법은 의문점으로 남아 있다.

이후 명나라의 唐順之가 저술한 『武編』⁵⁵⁾에도 진법에 대한 거론이 있다. 특히 그가 제시한 赤卒十二星⁵⁶⁾의 논리는 진법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 『무편』은 『기효신서』, 『무경총요』 못지 않게 많은 분량으로 이루어진 저술로 진법 역시 많은 내용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가 주장한 적졸십이성과 그 변화에 대하여 간략하게 짚어 보고자 한다.

<도-16>은 『무편』의 내용을 참조하여 재현해 본 것이다. 이 그림의 좌측에 있는 12개의 별을 적졸십이성이라 한다. 당순지는 이 성좌에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진법의 변화공식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진법의 변화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왔기에 그가 이 원칙을 새롭게 창안한 것은 아니다.

<도-16> 赤卒十二星의 팔진 변화



동서고금의 전투대형은 서로 유사한 면이 있다. 한 예로 <도-16>의 蛇陣과 같은 형태는 서구식 작전 명칭으로 前角形이라 하고, 鳥陣은 後角形, 風雲陣은 左右梯隊로 이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보면 전쟁의 원칙이란 승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대나 지역을 떠나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이상은 중국의 연구자들이 남긴 문헌을 통해 분석해 본 것이고, 다음은 우리 선조들의 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도 진법을 연구한 인물들과 관련된 문헌은 많지만 대부분 운용방법에 치중하였다. 그래서 진법의 원리를 분석한 인물은 대체로 안명노

55) 『武編』, 『文淵閣四庫全書』 727卷, 臺灣 商務印書館 影印, 1983, 358쪽.
 56) 赤卒 : 中國의 『隋書·天文志』, 『宋書·天文志』 등에 나오는 星座. 『中文大辭典』 6卷, 1684쪽 : ‘赤卒, 在房星西南(晉書天文志). 赤卒十二星, 在房星西南(宋史天文志).’

와 양완 두 사람을 꼽을 수 있다. 그 중에도 팔진법을 가장 심도 있게 연구한 인물은 안명노가 아닐까 한다. 안명노 이후에 『악기도설』을 쓴 양완은 『악기경』과 육화진 연구에 치중한 면이 있다.

안명노는 역대 인물들이 남긴 여러 가지 팔진도를 분석하여 『연기신편』에 수록하였다. 진법에 대한 그의 대표적인 견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 5】

㉑정전법에 의한 九軍方陣은 실로 팔괘 방위에 기본적인 것으로 팔진의 모든 법은 모두 구군방진에서 출현한 것이다. 그런 까닭에 팔괘의 배치와 四正四奇의 법은 그 법도가 동일하다.……㉒정전의 阡과 陌은 구군의 장벽과 城壘이다. 옛 법에 전차를 이용하여 성을 만들어 매 진마다 8문을 설치하였으니 원문이라 하였다. 오랜 기간 주둔하려면 나무나 돌로 만들기도 했으니 공명의 어복진이 그렇다.……㉓대개 공명의 팔진은 사실상 풍후약기에 기본적인 것이고, 이정의 육화십이진은 사실상 팔진을 기본으로 한 것이다.⁵⁷⁾

【자료 5】의 ㉑는 진법이 출현한 근원을 설명한 것이고, ㉒는 구정법과 진법이 동일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㉓는 진법의 유래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이다. 이와 같은 안명노의 견해는 조선의 武將들도 진법을 깊게 연구하였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안명노나 양완은 중국의 연구자들보다 탁월한 견해를 보이기도 하였다.

팔진법은 중국의 배서에서부터 양완에 이르기까지 연구자에 따라 독자적인 주장을 펴고 있지만 대부분 8개 부대를 8열로 배열한 64괘 배열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면 관계상 그들의 진법을 모두 제시할 수 없기에 현존하는 팔진법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도-17> 용정의 팔진도와 가장 최근으로 보이는 <도-18> 양완의 팔진도를 놓고 비교해 보고자 한다.

57) 安命老, 『演機新編』, 국립중앙도서관 전자도서, 刊寫者 年度 未詳 : ‘㉑井田九軍方陣, 實本於八卦方位, 而八陣諸法, 悉出於九軍方陣, 故, 八卦分配, 及 四正四奇之法, 同一其揆.……㉒井田之阡陌, 卽九軍之壁壘也. 古法, 用車乘爲城, 每陣, 各設八門, 所謂轅門也. 久住則以木石爲之, 孔明之魚腹是也.……㉓盖孔明八陣, 實本於風后握機, 李靖六花十二陣, 實本於八陣.’

이 두 진도에서, 용정이나 양완 모두 『악기경』의 포진법보다는 제갈량의 팔진법을 재현하려고 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내부의 배치방법은 서로 다르다. 용정은 ‘천지풍운’의 정진만을 그렸고, 양완은 ‘용호조사’의 기진을 정진 속에 배열하였다. 용정의 진에는 주력인 天衝을 좌우에만 배치하여 전후가 취약하지만 양완은 전후좌우에 모두 배치하여 진의 균형을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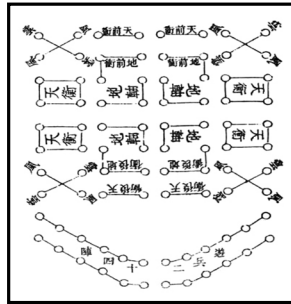
용정의 배치는 『악기경』보다 어복포의 팔진법에 치중한 듯 보이고, 양완은 악기경과 팔진법을 융화시켰다고 보인다.

필자는 악기진법이나 팔진법에 근접한 진도를 <도-19>와 같은 오위진법으로 보고 있다. 왜 그런가? 구정법으로 볼 때 팔진은 하나의 통합된 부대이다. 그에 대한 지휘를 용이하게 하고자 중앙을 중심으로 전·후·좌·우로 분배한 것이 4개의 正陣이다. 중앙의 지휘본부는 전투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정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나머지 네 공간은 실 병력이 배치되지 않는 奇陣으로 虛陣(예비진지)인 셈이다. 따라서 악기진법이나 팔진법의 실체는 4개의 정진뿐으로, 다른 4진은 그 속에서 변화를 위해 준비된 奇陣이어야 하며 이에 부합된 진법이 오위진법이다.

『악기경』에서도 ‘팔진은 네 개가 正陣이고 네 개는 奇陣’이라고 명시하고 있다.⁵⁸⁾ 양완도 구정법을 설명하면서 實陣은 다섯 개만 그리고 나머지는 공간으로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⁵⁹⁾ 그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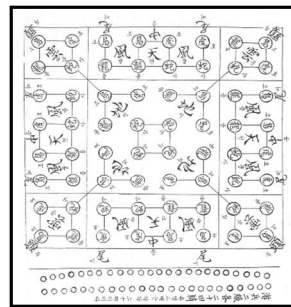
<도-17> 龍正의 팔진도

(中國解放軍出版社, 『中國兵書集成』, 40권 參照)



<도-18> 楊垕의 팔진도

(기창족보사, 『國譯 握奇圖說』 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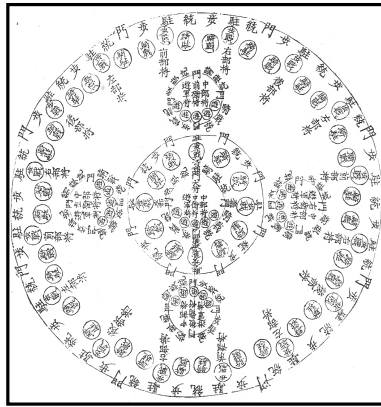


58) 『握奇經』, 『文淵閣四庫全書』 726卷, 臺灣 商務印書館 影印, 1983, 3쪽 : ‘經曰, 八陣, 四爲正, 四爲奇, 餘奇爲握奇, 或總稱之.’

59) 忠莊公 梁憲洙大將 記念事業會, 『國譯 握奇圖說』, 기창족보사, 2005, 7-15쪽.

나 이정이 당태종의 물음에 대하여 “제갈량은 돌로써 중횡으로 八行方陣의 법을 전개했는데 이 그림을 말하는 것이다.”⁶⁰⁾라고 한 뒤, 진법을 연구한 인사들은 ‘팔행’이나 ‘팔진’이라는 말에만 집착하여 진을 여덟 개로 그렸다. 그렇지만 팔진은 변화가 완료된 상태로, 폭발된 탄약과 같아 실전에 쓸모가 없다. 후세 사람들이 그린 진도들이 전장에서 활용된 기록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이 아닌

〈도-19〉 五衛連陣의 圓陣
(전사편찬위원회, 『兵將說·陣法』, 참조)



가 한다. 제갈량의 어복포 팔진은 ‘돌과 흙’만으로 축조되어 변화시킬 수가 없었기에 변화가 완료된 상태로 포진했던 것이고, 부대를 운영하는 실전에서는 그가 다양한 진법을 구사했지만 처음부터 전개된 팔진을 운용했다는 기록을 찾아 볼 수 없는 것도 그에 대한 의문 중 하나이다.

이에 비하여 『오위진법』은 圓·方·曲·銳·直·連 등의 여러 방법으로 포진하였지만 모두 약기진법의 원칙을 담고 있다. 특히 정경달의 『진법』 필사본을 통하여 이 진법이 당시 야전 지휘관들에 의해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악기경』은 전장의 공황상태에서 이탈하기 쉬운 병력과 부대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진법이고, 팔진법은 여기에 덧과 함정의 기법을 첨가한 전법이었음을 추연할 수 있다.

진법을 모르면서 병법을 운용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전투기술이 없는 진법은 기계장치 없는 차량과 같다. 제갈량과 이정은 실전 지휘관으로 전투 기술이나 진법은 물론 병법에도 정통하였다. 그들은 먼저 팔진법이나 육화진이라는 큰 틀을 구상하고 그 안의 세부조직까지 세심하게 설계하여 실전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법을 창안했던 것이다.

60) 「李衛公問對」, 『文淵閣四庫全書』 726卷, 臺灣 商務印書館 影印, 1983, 147쪽 : ‘諸葛亮以石, 縱橫布, 爲八行方陣之法, 卽, 此圖也.’

반면에, 후세의 배서나 증공량·용정과 같은 인물들은, 진의 외형은 그리고 있었지만 기계장치와 같은 내부의 전투방법에 대한 제시는 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척계광의 병법을 보면 내부의 진법은 뛰어났지만 진법이라는 큰 틀을 보는 도락이 부족했다. 그래서 왜구퇴치와 같은 소규모 전투에는 실용적이었지만 대군을 이용한 진법의 전개에는 한계가 있었다. 조선에서는 이점을 간파했기 때문에 『기효신서』를 중간할 때 용정의 『팔진합변도설』 등을 추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래서 중국의 『기효신서』보다 조선의 『기효신서』가 한 차원 높게 편찬되었음을 볼 수 있다.

안명노 역시 중국의 여러 진법들을 비교 분석하였지만 전투기술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거나 개념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진법과 전투기술을 아울러 소개한 인물이 양완이다. 그의 『악기도설』은 상편인 ‘乾’과 하편인 ‘坤’으로 저술되어 있다. 상편에서는 팔진법은 물론 육화진법이라는 큰 틀을 분석한 뒤, 하편에서는 팔진이나 육화진법의 틀 안에서 전투하는 기술을 鹿角車陣法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양완은 이것이 별개의 진법이 아니라는 것을 【자료 6】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자료 6】

지금, 단지 上篇만 있고 下篇이 없다면 전투하는 방법을 어떻게 알고 익힐 것이며 진법의 전술을 쓸모 있게 하리오. 대 부대를 훈련하되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진법의 순서에 따라 그 법칙을 示演하면, 奇正은 그 안에서 자유자재로 운용되고, 신비한 비결은 진법을 운용하는 사람에 의해 조종되는 것이다.⁶¹⁾

양완의 『악기도설』은 진법의 기본에서부터 포진의 원리를 단계적으로 설명하였고, 64괘 위에 팔진을 배치하여 변화의 원리를 보여 주었다. 특히 육화진의 설명은 부분적인 도식을 곁들여 다른 사람들의 이해를 쉽게 하고 있다. 또한 坤卷에는 진법에 의한 전투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이로서 『악기

61) 忠莊公 梁憲洙大將 記念事業會, 『國譯 握奇圖說』, 기창족보사, 2005. 80쪽 : ‘今, 只有上篇, 而不下篇, 則安能識習, 舞之義, 閑輿之方, 而以致用也. 教閱大率, 亦依問對, 序次圖附, 以示其規矩, 奇正自在於中, 入神致用, 存乎其人.’

도설』은 현존하는 전통시대의 진법서 중 가장 우수한 문헌이라 할 수 있으며, 그가 뛰어난 진법가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팔진의 변화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이 圖說을 완성하지 못한 것 같다.

이상과 같이 분석을 통하여 팔진은 첫째, 제병협동에 의한 뒷의 기능이 있고, 둘째, 圓形·方形·前角形·後角形·左右梯隊, 그리고 縱隊와 橫隊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찾아 낼 수 있었다.

4. 운용방법

(1) 布陣 戰法

포진의 목적은 적과의 싸움에서 아군의 안전을 보장하며 승리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陣法을 말하면서 그에 대한 전투방법을 설명하지 못하면 戰法이 될 수 없다. 이에 진법의 기본이 된다는 『악기경』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다음과 같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자료 7】

포진을 마치면 ㉔遊軍은 적의 후방이나 좌우 측에 침투하여 교란시킨다. ㉕적이 움직이게 되면 북과 징에 의한 음향신호나 旗와 麾에 의한 示號 신호에 의해 龍虎鳥蛇의 네 奇陣을 출전시킨다. ㉖天陣의 앞에 있는 衝은 虎翼陣이 되고, 風陣은 蛇蟠陣이 되어 적을 포위한다.⁶²⁾

【자료 7】 ㉔의 설명은 수색정찰대의 활동을 말한다. 포진이 완료하여 전투준비가 끝나면 먼저 정찰대를 보내 적의 허실을 탐지하는 한편, 아군

62) 「握奇經」, 『中國兵書集成』1卷, 解放軍出版社, 1987, 514쪽 : '陣訖. 遊軍. 從後躡敵. 或驚其左. 或驚其右. 聽音望麾. 以出四奇. 天地之前. 衝爲虎翼. 風爲蛇蟠. 圍繞之義也.'

이 계획한 작전지역으로 적을 유인해 낸다. ⑥는 적이 움직이면 아군은 북이나 깃발에 의한 신호 명령에 따라 작전하라는 것이다. 이때 출전하는 부대는 천지풍운이라는 4개의 正兵이 아니라 용호조사라는 4개의 奇兵들이다. 정병은 주진지를 견고하게 지키고, 기병은 적을 공격한다. 이 문장에서 正陣은 수비를 목적으로, 奇陣은 공격을 목적으로 구성한 것임을 볼 수 있다. ⑦는 진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다. 정병인 天陣에 소속된 衝은 기병인 호익진으로 변화하고, 풍진은 사반진으로 변화하여 적을 포위 공격한다는 작전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波狀攻擊과 돌격 방법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자료 8】

①호익진은 중앙에 위치하여 날개를 펴 전진하고, 사반진은 양쪽에 위치하여 적이 좌우로 역습하는 것을 대비한다. ②천진과 지진의 배후에 있는 충은 비룡진이 되고, 운진은 조상진이 되어 돌격한다. ③비룡진은 중앙에 위치하여 나래를 펴 진격하고, 조상진은 좌우에서 나래를 펴 적의 역습을 대비한다.⁶³⁾

【자료 8】은 순차적인 공격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①은 1제대의 공격 방법이다. 호익진이 먼저 주공이 되어 공격할 때 사반진은 좌우에서 조공이 되어 적의 좌우 역습에 대비한다. ②는 1차 공격이 여의치 않거나 전과 확대가 필요할 때 주력부대의 후방에 있던 예비대가 비룡진이 되고, 운진은 조상진이 되어 돌격시킨다. ③은 2제대의 돌격 방법이다. 비룡진이 주공으로 공격할 때 조상진은 좌우 조공으로 적의 반돌격에 대비하게 한다.

다음은 奇正을 설명하고 있다.

【자료 9】

①虛陣과 ②實陣 두 진영은 모두 ③천문이나 기상상태를 고려하고, 풍향과

63) 「握奇經」, 『中國兵書集成』1卷, 解放軍出版社, 1987, 515쪽 : '虎居於中, 張翼以進, 蛇居兩端, 向敵而蟠以應之. 天地之後, 衝爲飛龍, 雲爲鳥翔, 突擊之義也. 龍居其中, 張翼以進, 鳥掖兩端, 向敵而翔以應之.'

방향을 엮두에 두며, 산과 하천의 상태를 파악하여, 공격이나 방어가 이로울 것이나 해로울 것이냐를 판단하여 이 모든 것이 시의적절할 때에 작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㉔정면작전으로 적과 교전하되 기습작전으로 승리를 쟁취한다. ㉕천진과 지진 이하의 진들은 8개의 진으로 포진하니 그것을 握機라 하기도 한다.⁶⁴⁾

【자료 9】 ㉔는 주진지를 말하고 ㉕는 기만진지를 말한다. ㉕는 이것들을 설치할 때 고려사항을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한 착안사항으로 천문을 고려하여 시기적으로 동계냐 하계냐? 주간이나 야간이나?를 판단하고, 기상은 청명한지? 구름이나 안개는? 그리고 눈비와 풍향 등을 관측하며, 산과 하천의 상태에 따라 배치하되 공격과 방어가 시의적절한 것인지? 이 작전이 가져다주는 결과는 어떠할지? 등을 분석하여 승산이 있을 때 결전하라는 것이다. ㉔는 먼저 정규전으로 교전하되 적이 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쉽게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허점을 포착한 기습공격으로 승리를 쟁취하라고 알려 주고 있다. ㉕는 分陣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하나의 부대를 天陣과 地陣 둘로 나눈 뒤, 천진에서는 風陣을 지진에서는 雲陣을 만들어 4개의 正陣으로 편성한다. 이 네 개의 正陣은 전투상황에 따라 각각 奇陣을 편성한다. 전법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정진이 있으면 반드시 기진이 있어야 하고, 奇兵이 있으면 반드시 正兵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天地風雲에서 龍虎鳥蛇라는 4개 陣이 조직되었고 이로써 8개의 진이 완성된다.

【자료 10】

적과 대처하면 그에 따라 ㉔掎角之勢를 이룬다. 전방에 배치된 부대는 움직이지 않고 견고하게 적을 고착시키면 다음 부대가 출전한다. ㉕어떤 경우에는 집중하여 하나의 부대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8개의 진으로 분산한다. 모두 군대의 많고 적음과 전투력의 수준에 따라 전개한다.

천진은 등글게 포진하여 움직이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전방은 왼쪽이 되고

64) 『握奇經』, 『中國兵書集成』 1卷, 解放軍出版社, 1987, 515쪽 : ‘虛實以壘, 皆逐, 天文·氣候·向背·山川·利害·隨時而行. 以正合, 以奇勝. 天地以下, 八重以列, 或曰握機.’

후방은 오른쪽이 된다. ㉔천진과 지진으로 全方位 작전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말한다.⁶⁵⁾

【자료 10】의 ㉓는 二廣 즉 犄角之勢를 말한다. 적과 대치하고 있는 전방부대는 적을 고착시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부대를 이용해 역습하라는 것이다. ㉔는 분산과 집중에 대한 설명으로 적의 상황에 따라 조절하라고 한다. ㉕는 全方位 작전을 설명하고 있다. 악기진법은 전후좌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적과 싸우는 곳이 정면이 되기에 어떠한 방향이라도 모두 전방이 될 수 있다. 대체로 일반부대의 전투대형은 전방에 전투력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좌우가 취약하고, 후방은 더욱 취약하지만 여기서는 그것을 보완하라고 한다.

다음은 총 공격을 말하고 있다.

【자료 11】

縱布⁶⁶⁾는 다음과 같이 한다. ㉓전방에 위치한 천진이 한 차례 공격한 뒤, 이어서 ㉔후방에 위치한 천진이 재차 공격을 가한다. 그 뒤 네 곳의 ㉕지진은 천진의 뒤를 이어 공격하고, 네 곳의 ㉖풍진은 천진과 지진의 좌우에서 협공한다. ㉗천진의 앞에 있는 충격부대는 그 오른쪽에서, ㉘뒤에 있는 충격부대는 그 왼쪽에서 응원하고, ㉙운진은 양쪽에서 호응하니 ㉚허진과 실진의 기정법은 이것을 말한다.⁶⁷⁾

【자료 11】은 총 력전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최전방에 배치된 ㉓가 1차 공격을 감행하면, 후미에 있는 ㉔가 재차 공격으로 합세한다. 그것도

65) 「握奇經」, 『中國兵書集成』1卷, 解放軍出版社, 1987, 515쪽 : '望敵 卽, 引其後, 以犄角. 前列不動, 而前列先進, 以次之. 或合而爲一, 因離而爲八, 各隨師之多少, 觸類而長. 天或圓而不動, 前爲左, 後爲右, 天地, 四望之屬, 是也.'

66) 縱 : 쳐들어가다. 진격하다. 짓밟다. 유린하다. 檀國大學校, 『漢韓大辭典』10권, 1459쪽.

67) 「握奇經」, 『中國兵書集成』1卷, 解放軍出版社, 1987, 516쪽 : '縱布, 天一, 天二, 次之. 縱布, 四地, 次於天後. 縱布, 四風, 挾天地之左右. 天地, 前衝居其右, 後衝居其左, 雲居兩端, 虛實二壘則, 此是也.'

여의치 않으면 예비대인 4개의 ㉔가 공격하고, ㉕는 천진과 지진의 좌우에서 협공한다. 여기에 ㉖는 우측에서 협공하고, ㉗는 왼쪽에서 가세하며, ㉘도 틈을 보고 양쪽에서 협공하여 총력전을 전개한다. 그렇다고 이렇게 출전시키는 것이 모두 실 병력이 아니다. 어떤 곳은 실 병력을 출동시키지만 어떤 곳은 기만전술을 쓰기도 한다. ㉙는 이것이 적과 '허와 실'을 서로 주고받으며 작전하는 奇正法이라고 말한다.

分습과 奇正의 변화는 현대전의 분산이나 집중과 같다. 이것들은 정반대적인 개념을 갖고 있지만 그 목적은 하나다. 공격할 때 적을 포위하려면 아군을 분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것은 분산이 아니고 목표에 대한 다른 형태의 집중이다. 방어 역시 다르지 않다.

이것은 화력전에서도 같이 적용된다. 적의 화력이 집중될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대를 산개하더라도, 산개된 위치에서 적의 화력근원지에서의 화력을 집중시켜 타격하면 分습이 일치되는 것이다.

(2) 5단계 戰法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진법에 一陣, 二廣, 三挾, 四圍, 五取의 5단계 戰法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① 一陣(단일성)

부대의 규모가 병종이나 임무에 따라 제대별로 세분화되지만, 어떻게 분산되더라도 한 명의 지휘관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하나의 개체'이다. 지휘권의 분산은 곧 부대의 와해를 가져 온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중국의 군사사상은 한 사람의 장수에 의해 모든 것이 독단되어야 한다⁶⁸⁾는 관념이 전래되어 왔으며,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군왕의 명령이 있어도 듣지 않을 수도 있다⁶⁹⁾고 하였다. 이와 같은 지휘권의 획일화원칙을 바

68) 「三略」, 『文淵閣 四庫全書』 726卷, 臺灣 商務印書館 影印, 1983, 95쪽 : '出軍行師, 將在自專, 進退內御, 則功難成.'

69) 「六韜」, 『中國兵書集成』 1卷, 解放軍出版社, 1987, 452쪽 : '軍中之事, 不聞君命, 皆由將出.'

탕으로 진을 여덟이나 그 이상인 64로 분할해도 결국은 하나일 뿐이다.

【자료 10】은 이에 대한 의미도 담고 있다.

② 二廣(견제)

二廣이란 춘추시대 楚나라의 진법에서부터 유래한 말로, 부대를 둘로 나누어 좌우에서 협공하는 방법을 말한다. 한쪽 면만의 공격과 방어보다는 양쪽에서 협공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본 고대에는 두 개의 뿔로 동시에 들이받아 상대방의 방어를 어렵게 하는 맹수에 비유하여 犄角之勢 또는 犄角之勢라고도 하였다. 【자료 10】의 ㉠가 그것이다.

③ 三挾(협공)

정면 대응을 하면서 좌우 양쪽에서 협공하되 퇴로를 열어 주어 적의 전투력을 와해시키는 방법이다. 【자료 11】의 ㉡가 그것이다.

④ 四圍(포위)

삼면 공격에서 완승이 가까워지면 사면포위로 후방 차단을 통하여 적을 완전 고립시킨다. 【자료 11】의 내용이 그것이다.

⑤ 五取(쟁취)

五取는 포위된 적에 결정타를 강하여 최종 승리를 획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5단계 진법은 고대 戰史들을 통하여 전형적인 전투방법으로 운용되어 왔음을 볼 수 있었다.

5. 결 론

陣法은 중국 고대의 인물인 풍후에 의해 창안된 것으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부대를 일정한 방법으로 조직한 뒤, 分合과 奇正의 변화를 이용하는 戰法이었다. 이것을 촉한의 제갈량은 八陣法으로 발전시켰고, 唐의 李靖은 六花陣을 만들어 각자 탁월한 전공을 세웠다. 그러나 그 방법은 공개할 수 없는 비전이었기에 그들의 진법은 전해지지 않는다고 한다.

이후 宋과 明代는 물론 朝鮮時代까지도 몇몇 군사학들에 의해 이에 대한 연구를 이어 왔지만 오늘날에는 첨단 병기의 출현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필자는 군 복무 중 수많은 훈련과 전술토의에 참관한 경험이 있다. 신분상 토의를 주도하거나 발표하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 깨달은 점은, 일반적으로 낡은 전법이라고 인식하고 있던 고대의 병법이나 진법이 첨단·과학화된 현대전의 전술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것이 현대화된 작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갖게 된 것이다.

전통시대의 진법을 현대 작전과 비교해 보면, 遊軍은 전투지역전단에 배치하는 전투전초인 'GP', 風雲陣은 전투지역 전단의 경계부대인 'GOP', 衝은 'FABA-A', 衝은 'FABA-B', 軸은 'FABA-C'와 같이 생각할 수 있었다. 다른 방법으로 遊軍은 수색정찰대, 衝과 虎翼陣은 전차와 장갑부대, 衝은 보병부대, 軸은 전투근무지원대, 風揚陣은 포병화력, 鳥翔陣은 육군항공이나 공군, 蛇蟠陣은 공병부대 등과 연계시킬 수도 있었다.

分습과 奇正의 변화 역시 현대전의 분산이나 집중과 같다. 진법의 원칙을 설명하는 『악기경』에서 '8'로 분산된 진이라도 결국 '1'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고대와 현대의 전술이 무엇이 같고 다른가를 생각해 보게 하였다.

현대전장은 과학발전이 가져다 준 첨단장비가 있지만, 전통시대의 전법에 비하여 경험치가 적다. 때문에 미래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한 새로운 전술을 창안하려면 오랜 경험을 다져온 전통시대의 전법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었고, 그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었다.

첫째, '진법은 河圖를 근원으로 한 팔괘의 원리에 九井法을 조화시켜 8개의 진으로 구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알려진 내용이지만, 팔진은 8개의 진으로 포진한 것이 아니라 전후좌우 4개의 진만으로 편성해야 함을 볼 수 있었다. 둘째, '伍制로부터 시작되는 편제'를 구성하고 있다. 이것은 軍도 人體와 같다고 보고, 좌우의 兩翼과 전후의 股肱을 배치한 것이다. 셋째, '步兵·騎兵·戰車의 諸兵種을 혼성'하여 전투력의 극대화를 가져왔다. 넷째, '지형에 따라 포진'했다. 다섯째, '奇正과 分습으로 적의 예측을

불허하는 진법'을 구사하였다. 唐順之의 이것을 赤卒十二星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섯째, 一陣, 二廣, 三挾, 四圍, 五取의 5단계 작전법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진법의 원리를 天符印의 기호에 착안하여 十圓方角의 '陣號'로 표현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포진의 원리를 한 마디로 축약한다면 '움직이는 덩'이다. 따라서 지뢰매설이나 장애물설치도 포진의 일종이며 덩을 놓는 한 수단이라고 본다면, 진법이 시사하는 의미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은 필자의 한계로 인하여 진법의 원리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물론 그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잘 것 없는 글을 발표하는 것은,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계승하고자 함이다. 아울러 이 분야에 활발한 연구가 계속되어 우리 군의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더 좋은 논문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원고투고일 : 2010. 3. 25, 심사수정일 : 2010. 4. 30, 게재확정일 : 2010. 5. 10)

주제어 : 『握奇經』, 『握奇圖說』, 陣, 陣法, 戰法, 八陣, 八陣法, 河圖, 八卦, 九井法
『악기경』, 『악기도설』, 진, 진법, 전법, 팔진, 팔진법, 하도, 팔괘, 구정법

<ABSTRACT>

A Study on the Principles of Battle Formation in an Ancient Time.

Hong, Eul-pyo

In an ancient time, the formation(陣) was to display personnel, equipment and facilities to fit into the topographical battleground condition, and disposition(陣法) was the way of formation and its management. On other words, the battle formation in an ancient time is equivalent to engagement technique and disposition to plan of operation in a modern sense.

In order to analyse the principle of disposition, this study was researched the origin and transmission of disposition followed by an investigation of the principle of line up and its operations. Finally, this study also attempts if this can be applied to a modern combat.

In this study, I found that disposition in ancient time were based on the following principles.

- (1) It is constructed on the basis of Hado(河圖), Palgwae(八卦) and Gujeongbeop(九井法).
- (2) Its organization is made based on Oje(伍制)
- (3) Branch of the army and equipment were composed with mixture.
- (4) Line up is made according to topographical condition.
- (5) The transformation principle is explained as Jeokjolsibiseong(赤卒十二星).
- (6) Five steps of strategy are employed: Iljin(progression, 一陣), Yikwang(expansion, 二廣), Samhyeop(recession, 三挾), Sawi(offense, 四圍) and Ochwi(acquisition, 五取).

(7) The principle of disposition is implicated in a signal "Sipwonbanggak(十圓方角)"

The ancient formation can be summarized in a word as a 'moving trap.' If laying a mine and an obstacle can be a sort of trap and a means of line up, 'trap' or 'the principle of disposition' may be the same in the modern combat.

Key Words : *Akkikyeong*(握奇經), *Akkidoseol*(握奇圖說), Formation(陣),
Disposition(陣法), Tactics(戰法), Paljin(八陣), Paljinbeop(八陣法),
Hado(河圖), Palgwae(八卦), Gujeongbeop(九井法).